

이화여자대학교 제11대 장상 총장 취 임 사

1

존 경하는 정의숙 재단 이사장님과 이
사님들, 운후정 총장님, 교직원, 그
리고 사랑하는 재학생과 동창 여러분, 그리
고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참석하여 이 자리
를 빛내주신 안병영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10년의 전통을 지닌 이화의 제
11대 총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저에게 이화는 꿈많은 대학생으로서 삶을
설계했던 곳이었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학문활동을 해 온 곳입니다. 매일 매일의
대강당 예배를 비롯해서 이화는 저를 키우
고 저에게 꿈을 주었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큰 감화로 그 시간들을 되돌아 보

면서 이화의 오늘이 있게 한 수많은 선배,
스승님들의 헌신을 상기합니다. 동시에 위
대한 이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숙연할 뿐입니다.

이화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뜻은 여성으로 하여금 억압과 굴종의 굴
레를 벗어 던지고 삶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
아를 실현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성
의 인간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의 한 세기는 여성의 인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 전체를 계몽하며 민
족과 국가의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적 시
민의식을 발전시켜 왔던 한국 근세사입니다.

개교 2세기에 접어든 이화는 이제 우리나
라 여성교육의 진정한 대명사인 명문사학으
로 우뚝 섰으며, 우리 사회 최고의 여성 지
성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는 단순히 많은 대학들 가운데 하나라

◇... 최근 우리 대학사회는 대학교육 환경의 미비함 속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물결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의 갈림길
에서 고민하는 대학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칼럼인 바, 이번 호에서는
이화여대 제11대 총장의 취임사를 발췌·게재합니다. 대학의 비전과 미래를 향한 의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

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근대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이화의 역사를 세계화로 조망해 보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화의 시작 자체가 이미 세계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선교사에 의한 이화의 시작은 사실상 기독교적 인류애에 근거한 세계화의 일단이었습니다. …(중략: 편집자)

이제 저는 이화의 제11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야 할 엄숙한 역사적 과제 앞에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혹시 선학들이 이룩해 놓은 이화의 그늘 아래 안주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 최고·최초·최신이라는 영광과 명성 속에 자만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시대에 걸맞은 참된 여성상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하면서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잠시 접고, 취임사를 빌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화의 현재 위상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2

대학은 그 시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리한 역사의식과 통찰력으로 동시대를 이끌어 갈 책무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문명비평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은 21세기를 과학기술의 첨단화·정보화·세계화는 물론 더 나아가 ‘여성의 시대’로 특징짓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문명이 동력에 의한 자본집약적 문명이었다면, 21세기 첨단 과학문명은 섬세함과 개별

성, 그리고 창의성이 좌우하는 지식집약적 문명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여성 특유의 강점이 요구되기에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로 등식화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간격을 뛰어 넘어 국경없는 지역화 시대, 동시성의 시대를,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념의 갈등이 종식되는 통일시대를 맞아 엄청난 변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여성교육은 이와 같은 세기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문명권으로 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맞게 될 통일한국시대에 이화의 역할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화의 시작은 개화의 상징이며 이화의 성장은 한국 근대화의 선구자적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언제나 남다른 혜안과 예지를 발휘하여 선구자의 길을 선택해왔던 이화가 이제는 21세기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세계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한 사회가 진정으로 세계화되려고 한다면 대학의 세계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계화에 의한 시작과 세계를 배운 성장과, 세계를 향한 준비의 단계를 거친 이화의 과제는 세계화의 구체적 성취입니다. 즉, 한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지금까지 국내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던 이화가 창립 2세기인 21세기에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며,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배출이며, 다른 하나는 21세기의 새로운 인류문명에 기여할 여성 지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여 학문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 명문대학을 능가하는 학습의 내실화와 학습량의 증대가 절실합니다. 이화는 세계적 수준으로의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개혁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단순한 전달을 위해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연구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수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교수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는 연구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화는 세계적인 연구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활동의 중심축이 되는 연구소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학문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제반 여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 및 연구시설을 세계적 수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화는 전임 총장님의 주도 하에 지난 몇 년간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시설 보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과 연구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축중인 학생관과 교육문화센터, 두 동의 기숙사와 고등정보통신관의 완공을 추진할 것이며, 사회과학대학과 교수회관, 그리고 대학원 건물의

신축과 사범대학, 미술대학의 증축을 곧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여성을 배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쟁력 있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전공능력에 더하여 이화가 배출하는 인재는 정보 사고능력과 정보 처리능력을 필수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보편화는 폭증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새 시대의 인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호응하여 이미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였고 고등정보통신교육원의 기공식을 곧 앞두고 있으며, 내년 신입생은 입학부터 인터넷 ID Card를 소지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교육·행정에 대한 두 단계 교내 종합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완벽한 '전자대학(Electronic University)'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세계화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합니다. 21세기는 국내 인재와 국제 인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국제활동에 필수전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통하여 국익을 도모할 여성 국제전문가의 배출은 21세기 이화의 몫입니다. 이화는 이미 20여 명의 Native Speaker를 확보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언어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전공에 대한 외국어강의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화 학생의 졸업요건은 정보처리능력과 하나 이상의 외국어에 대한 자유로운 구사력이 반드시 겸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둘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서 필수적 기본적인 능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이화의 또 하나의 노력은 특수전문대학원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대학원 등을 통하여 고급 인력 배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제 그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국제통역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치행정대학원, 임상보건대학원, 법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의 신설을 통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문교육과 기능적 교육의 성취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맹목적인 경쟁과 기술 및 기능만을 아는 전문인이란 결국 근시안적인 에너지밖에 창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과학기술이나 문명도 인간과 자연,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대한 도구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여러 학문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새로운 첨단 정보화사회에서 어떻게 참다운 대학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가를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배출의 관건은 인성교육에 있습니다. 이화교육의 뿌리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화는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진·선·미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대학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희생과 봉사의 정신과 올바른 사고와 윤리의식을 겸비한 지성인, 곧 기독교적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화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함양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며 모든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화 세계화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화가 단순히 한국의 이화가 아니라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속의 이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계화 개념의 보다 중요한 내용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화의 시작이 수혜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화의 세계화는 세계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기여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이화의 저력과 슬기와 용기를 세계 여성교육에 협력하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 우리의 여성 지도력이 제1세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1세계의 학문적 전통과 사회의식을 공유하였듯이, 오늘날 이화는 제3세계 여성지도력 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지원하는 세계 여성고등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과 나눔의 정신은 분단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북한의 여성들에게 물론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한, 평양에 이화분교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그 기초 작업을 위한 방북 신청을 곧 정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여성교육의 중심적 역할의 한 전진기지로서 국제교육원을 확대할 것이며, 제3세계 여성지도력 센터와 국제여성지도력기금, 통일여성교육기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제 이화교육은 외국으로 유학 가던 일방통행의 시대를 마감하고, 외국에서 유학 오는 상호교류의 시대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공동체에 기여하는 이화의 문명사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화의 출발이 이 땅에서의 여성의 인간화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이화 제2세기의 도약은 전 인류의 인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산업사회는 남성의 세기요 남성 중심의 문명이었으며, 그 문명에 여성들이 참여해 보려고 애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참여와 공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며, 여성의 특성을 보다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기의 사회질서에서 결핍된 사랑과 상실되어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환경과 생태를 돌보는 데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여성의 축적된 창조력이 발휘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라고 할 때, 그것은 20세기까지가 남성중심의 사회였듯이, 21세기가 배타적인 여성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상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동등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창조질서의 본질은 남성적인 것도 아니며 여성적인 것도 아니고 양자가 조화된 통합문명입니다. 그것은 양성간의 대등한 의식과 능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인간공동체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문명의 창출을 위해서는 책임있고 진지한 여성의 지성공동체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21세기 이화의 역할은 바로 민족과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새로운 통합문명 창출의 진원지로서 세계적 여성 지성공동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미래의 역사를 담당할 주체로서의 새로운 여성상, 그리고 인류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3

이화가 그와 같은 큰 꿈을 이루며, 그 큰 도약을 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이화의 잠재력과 역사적 과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고 진지한 이해와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110년을 성실하게 자라온 이화는 우선 학생수와 규모에서 이미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이며, 학문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가장 균형잡힌 최고의 여자종합대학입니다. 이화공동체는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한 학생들과 탁월한 교수진, 헌신적인 직원, 그리고 한결 같이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과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화의 후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화에는 선대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오랜 세월 성실하게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높은 도덕성의 문화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헌신의 문화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다 활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추구하는 최선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계승에서 진취적 변화로, 자기성장과 발전에서 헌신적 참여와 봉사로 지향하는 진취성과 개방성의 전통입니다. 이 힘은 어느 기관도 추종하기 힘든 문화적 정신적 자산입니다. 1995년 1차 대학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이화가 평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서 앞으로 세계 명문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학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화가 그 꿈을 펼칠 21세기는 문명사적인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문명은 서구가 아니라 아시아 중심의 문명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고유의 가치관은 세계의 현대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모형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이 아시아 중심적이며 여성의 경험과 지혜

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세기라고 할 때, 이화는 그 존재 가치가 확인될 것이며 여성 지성공동체로서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한 복판에서 이화가 제2세기를 맞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화에게 주신 21세기의 사명과 역할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화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약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열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이화공동체가 이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하며, 합일된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화공동체 구성원들의 구슬같은 지혜와 불굴의 용기와 그리고 끈질긴 의지를 함께 꿰어 이화의 도약을 위한 헌신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화의 시작은 개척정신에 근거하고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이화공동체의 원형을 되살려서 미래를 향하여 열

린, 신나는 공동체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화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화는 이화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여성의 힘의 결집이며, 한국 전체의 자산입니다. 이화가 한국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화를 격려 후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화가 세계 여성 지성공동체로서 인류 역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조국을 빛내는 길이며, 하나님의 세계화 섭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화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큰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역사적 순간, 소외된 여성들에게 빛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화를 세우셨던 선각자들의 믿음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 (중략 : 편집자) ... 새롭게 응비할 이화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의 조국과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